

키토산 유도체의 담즙산 흡착 활성

이아린 · 이강만[#]

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

(Received July 28, 1998)

The Bile Acid Absorption Activity of Chitosan Derivatives

Aileen Lee and Kang Man Lee[#]

College of Pharmacy, Ewha Womans University, Seoul 120-750, Korea

Abstract— Chitosan has been known to have hypocholesterolemic and hypolipidemic effects in animal studies. Chitosan also absorbs bile acids *in vitro* and *in vivo*, which might result in the hypocholesterolemic action. Trialkyl chitosan derivatives were prepared and tested for bile acid absorption activity *in vitro*. The derivatives showed enhanced absorption capacities which were comparable to cholestyramine.

Keywords □ Chitosan, N-trialkyl chitosans, bile acid absorption.

키토산(chitosan)은 poly-D-glucosamine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새우, 게, 갑각류 등의 외골격 및 진균류의 세포벽에서 쉽게 얻어지는 키틴(chitin: poly-N-acetyl-D-glucosamine)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을 수 있는 물질이다. 이 물질은 *in vivo*와 *in vitro*에서 담즙산을 흡착한다고 알려진 물질로 LDL(low density lipoprotein)의 농도를 저하하며, 혈중 cholesterol이 담즙산(bile acid)으로 계속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혈중 cholesterol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효과는 cholestyramine과 비교되기도 하였다.^[1-3]

Cholestyramine 수지는 장관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담즙산과 결합함으로써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대변으로 배설을 증가시키고, 담즙산은 cholesterol을 담즙산으로 전환하는 효소인 microsomal hydroxylase를 억제하므로 담즙산의 제거는 cholesterol로부터 담즙산의 생성을 증가시킨다.^[4] 그러나 cholestyramine의 경우 장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하고 다량 투

여서 오심, 구토, 변비, 지방변증과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 증상을 일으키는 결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.^[5] 한편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Sugano 등^[1]은 5% 농도로 cholestyramine을 투여했을 때 변비증상을 야기하는데 비하여 키토산은 10% 농도 투여시에도 변비 또는 설사 등 변의 양과 질에 어떠한 변화도 관찰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여 cholestyramine이 보이는 부작용이 키토산 투여에서는 없음을 제시하였다.

Cholestyramine의 구조는 4급 암모니움을 포함하여 음이온 교환 수지의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잔기 중에 있는 Cl⁻가 담즙산으로 치환되어서 흡착의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혈청 cholesterol 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키토산을 사용하여 키토산의 -NH₂기에 trimethyl, triethyl, tripropyl등의 chitosan-N-trialkyl 4급 암모니움 유도체를 만들어서 담즙산 흡착 활성을 실험하였다.

실험방법

키틴의 제조 — 키틴은 No등^[6]의 방법을 변형하여 제조하였는데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수집한 꽃게의 등껍질

*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
(전화) 02-360-3041 (팩스) 02-360-3051

을 수세하여 건조한 후 일정 크기로 분쇄한 것을 40 g 취하여 4°C의 1 N 염산 1 L에 24시간 반응시켜 탄산칼슘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중화시킨 후 95% 에탄올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여과하여 40°C 오븐에서 건조하였다. 이 조끼틴을 60°C, 10%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20시간 반응시켜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, 중화한 후 아세톤으로 세척하고 건조하여 정제 키틴으로 사용하였다.

키토산의 제조 – 키토산은 No등⁷⁾의 방법을 변형하여 꽃게에서 얻은 키틴을 50%(w/w)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고체와 용매의 비를 1:10(w/v)으로 하여 100°C에서 31시간 처리하여 탈아세틸화시키고 반응액을 재빨리 얼음물에 분산시켜 세척한 후 다시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50°C 오븐에서 건조하였다. 키토산의 탈아세틸화 정도는 Moore⁸⁾의 방법에 따라 chitosan film을 만들어 IR spectrophotometer로 4,000~600 cm⁻¹ 범위의 IR spectrum을 얻어 측정하였다. 조제한 키토산의 탈아세틸화정도는 95%이상이었다. 탈아세틸화정도는 100-(A₁₆₅₅/A₃₄₅₀) × 100 ÷ 1.33의 식으로부터 계산하였다.

N-trimethyl Chitosan(NTM-C)의 제조 – Domard 등⁹⁾의 방법에 따라 키토산 10 g을 N-methyl-2-pyrrolidone 250 mL에 12시간 분산시킨 후 2.2 M 수산화나트륨 1 mL, 메틸요오드 33 g, 요오드화 나트륨 10 g을 혼탁액에 첨가하고 질소가스 하에서 36°C, 16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반응시킨 후 에탄올 800 mL에 침전시켰다. 침전물은 원심분리로 세척하였고,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켰다.

N-triethyl Chitosan(NTE-C)의 제조 – NTM-C의 제조과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메틸요오드 대신 에틸요오드 36.26 g을 사용하여 60°C,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isopropanol 800 mL로 침전시켜 원하는 물질을 얻었다.

N-tripropyl Chitosan(NTP-C)의 제조 – NTM-C의 제조과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메틸요오드 대신 프로필요오드 39.53 g을 사용하여 90°C, 20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isopropanol 800 mL로 침전시켜 원하는 물질을 얻었다.

담즙산의 정량 – 담즙산용액(0.1% sodium azide를 포함하는 0.1 M 인산 완충액 pH 7.0에 taurocholate 1~15 mM 함유) 0.5 mL에 45% 황산 3 mL과 0.3% furfural 수용액 0.5 mL을 넣고 65°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나온 청색을 spectrophotometer

로 68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.¹⁰⁾

시간에 따른 담즙산의 흡착량 변화 – 키토산, NTM-C, cholestyramine각 0.5 g을 10 mM taurocholate 용액(pH 7.0) 30 mL에 첨가하고 37°C에서 200 rpm으로 교반하면서 반응시킨 후 1시간과 3시간에 각각 1.5 mL을 취한 후 Centricon-10(Amincon[®])을 사용하여 5,000 g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여 나온 여액 0.5 m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.

pH에 따른 담즙산의 흡착량의 변화 – 키토산 용액의 pH를 5, 6, 7, 8, 9로 변화시켜 담즙산의 흡착정도를 실험하였다. 한편 키토산, cholestyramine, NTM-C, NTE-C, NTP-C 각 0.5 g을 pH 5, 7, 9인 15 mM taurocholate buffer 30 mL에 넣고 37°C, 200 rpm에서 2시간 흡착시킨 후 1.5 mL을 취하여 앞에서와 동일하게 조작하여 흡착률을 구하였다.

담즙산 흡착강도 실험 – pH 6, 7, 8의 10 mM taurocholic acid buffer 30 mL에서 cholestyramine, 키토산, NTM-C 각각 0.5 g을 4시간 반응시킨 후 1.5 mL을 취하여 Centricon-10에 넣고 5,000 g에서 1시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여액중 담즙산 농도를 분석하고, retentate에 인산 완충액 1 mL를 가하여 잘 혼화한 다음 다시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2회 반복, 세척하여 담즙산의 흡착정도를 실험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시간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 – Table I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세가지 물질은 시간에 따라 흡착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. 이를 고분자 물질은 담즙산 용액에 혼합한 후 초기 1시간 이내에 흡착이 완료되어 시간이 더 경과되어도 흡착량에는 변화가 없었다. 키토산의 흡착정도는 40%(pH 7.0) 내외였으나 NTM-C는 73%이상의 흡착률을 보여, 키토산에 비해 흡착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

Table I—The effect of incubation time on bile acid absorption at pH 7.0

Polymer	% Absorption	
	1 Hour	3 Hours
Cholestyramine	92.7	93.2
Chitosan	39.7	38.3
N-trimethyl chitosan	73.0	77.0

% SE were less than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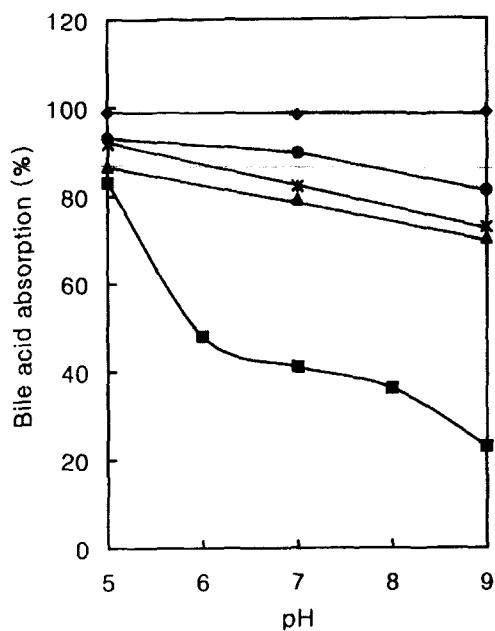


Fig. 1 — The effect of pH on bile acid absorption of various chitosan derivatives. % SE range was less than 8 (◆: cholestyramine, ●: N-triethyl-chitosan, *: N-tripropyl-chitosan, ▲: N-trimethyl-chitosan, ■: chitosan).

pH에 따른 흡착량의 변화 — Fig. 1에서 볼 수 있듯이 키토산에 담즙산이 흡착되는 정도는 용액의 pH에 매우 민감하였다. 산성조건에서는 흡착정도가 우수하였으나 알칼리성에서는 20%까지 떨어졌다. 키토산 유도체들의 담즙산 흡착성이 pH에 따라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용액의 pH를 5, 7, 9로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는 Fig. 1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. pH 9에서도 NTM-C는 70% 이상, NTE-C는 80% 이상,

NTP-C는 70% 이상의 흡착을 보였다. 산성에서 보다 알칼리성에서 흡착률이 감소하는 것은 키토산의 amino group의 trialkylation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.

흡착강도 — Table II에 나타난 것과 같이 cholestyramine은 처음 담즙산 용액농도의 ~20%를 유출하였으나 키토산은 흡착강도가 작아서 3번 세척에 의하여 100% 유출되었다. 반면, NTM-C는 ~25% 내외의 매우 적은 양의 유출만을 보여 cholestyramine과 유사한 강한 흡착강도를 보였다.

키토산은 *in vitro*에서 담즙산의 흡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pH 6이상에서는 물에 녹지 않는 고분자 물질이다. 키토산의 -NH₂기에 alkyl group를 붙여서 4급 암모니움염을 만들었을 때 물에 녹는 형태가 되었고, 중성과 알칼리성 영역에서도 키토산에 비하여 담즙산 흡착률의 향상을 관찰할 수 있어 키토산의 trialkylation이 담즙산 흡수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. Triethyl-, tripropyl- chitosan의 경우는 양에 따라 cholestyramine과 비견되는 흡착률을 보여 앞으로 혈중 cholesterol의 저하제로서의 이용이 기대된다. 키토산의 담즙산의 흡착이 pH에 민감하게 반응함과 4급 암모늄화가 담즙산 흡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로부터 de-acetylation 정도가 높은 키토산을 사용하여 높은 정도로 trialkylation 시킨 키토산 유도체를 제조한다면 pH에 무관하게 cholestyramine에 상응하는 담즙산 흡착능을 가지는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결 론

키토산과 그의 trialkyl 유도체인 N-trimethyl-, N-

Table II — Analysis of bile acid absorption strength of chitosan and its derivatives during repetitive washing

Polymer	pH	Bile acid (mM)* in Filtrates			Total % Release
		1st Filtrate	2nd Filtrate	3rd Filtrate	
Cholestyramine	6	0.82	0.73	0.51	20.5
	7	0.16	0.61	0.50	12.8
	8	1.21	0.57	0.32	21.0
N-trimethyl-chitosan	6	0.67	0.27	1.38	23.2
	7	1.15	0.25	0.25	16.4
	8	1.83	0.27	0.37	24.7
Chitosan	6	6.77	1.87	1.36	100
	7	6.35	2.74	0.91	100
	8	8.20	1.80	-	100

* Initial concentration of bile acid solution was 10 mM.

triethyl-, N-tripropyl- chitosan의 담즙산 흡착력을 cholestyramine과 비교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키토산의 담즙산 흡착력은 pH 변화에 민감하여 산성에서는 흡착효과가 우수하나 알칼리성에서는 저조하였다.

2. N-trialkyl chitosan 유도체들의 단위질량당 담즙산 흡착량은 산성조건에서는 키토산과 cholestyramine⁶⁾ 비슷하였고,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cholestyramine 보다 약간 낮았으나 키토산 보다는 월등히 높았다.

3. N-trialkyl chitosan 유도체들의 담즙산 흡착강도는 키토산보다 월등히 우수하여 cholestyramine의 흡착강도와 대등하였다.

따라서 N-trialkyl chitosan 유도체들은 사람의 장관조건에서 키토산 보다 담즙산을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.

문 현

- 1) Sugano, M., Fujikawa, T., Hiratsuji, Y., Nakashima, K., Fukuda, N. and Hasegawa, Y. : A novel use of chitosan as a hypocholesterolemic agents in rats, *Am. J. Clin. Nutr.*, **33**, 787 (1980).
- 2) Sugamno, M., Watanabe, S., Kishi, A., Izume, M. and Ohtakara, A. : Hypocholesterolemic action of chitosans with different viscosity in rats, *Lipids*, **23**, 187 (1988).
- 3) Vahouny, G. V., Satchithanandam, S., Cassidy, M. M., Lightfoot, F. B. and Furda, I. : Compara-

tive effects of chitosan and cholestyramine on lymphatic absorption of lipids in the rat, *Am. J. Clin. Nutr.*, **38**, 278 (1983).

- 4) Grundy, S. M., Ahrens, E. H., Jr. and Salen, G. : Interruption of the enterohepatic circulation of bile acids in man: comparative effects of cholestyramine and ideal exclusion on cholesterol metabolism, *J. Lab. Clin. Med.*, **78**, 94 (1971).
- 5) Brown, M. S. and Goldstein, J. L. : Drugs used in the treatment of hyperlipoproteinemias, in *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* (Gilman A. G. et al. ed.) Pergamon Press, New York, pp. 888 (1991).
- 6) No, H. K., Meyers, S. P. and Lee, K. S. :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hitin from crawfish shell waste, *J. Agric. Food Chem.*, **37**, 575 (1989).
- 7) No, H. K. and Meyers, S. P. : Crawfish chitosan as a coagulant in recovery of organic compounds from seafood processing streams, *J. Agric. Food Chem.*, **37**, 580 (1989).
- 8) Moore, G. K. and Roberts, G. A. F. :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N-acetylation of chitosan, *Int. J. Biol. Macromol.*, **2**, 115 (1980).
- 9) Domard, A., Rinaudo, M. and Terrassin, C. : New method for the quaternization of chitosan, *Int. J. Biol. Macromol.*, **8**, 105 (1986).
- 10) Chang, H. J., Jeon, D. W. and Lee S. R. : *In vitro* study on the functionality in digestive tract of chitin and chitosan from crab shell, *Korean J. Food Sci. Technol.*, **26**, 348 (1994).